

격변기의 가치관의 혼란과 T.S. Eliot의 신비주의*

李 廷 鎬

(英文科 副教授)

I. 머릿말

T.S. Eliot(1888~1965)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두 개의 세계 대전을 겪은 시인이다. 인류의 문명은 가속도적으로 발전하여 자동차, 비행기등의 놀랄만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지만, 그 반면으로는 노벨(Nobel)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이후로 인간 살상무기의 가공할만한 발전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살인 무기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은 세계 2차대전에 이르러서는 월자탄이라는 가공할만한 무기의 발전에 이르러 결국에는 전쟁의 흉포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인류최초의 핵무기를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전쟁의 잔혹성은 단지 인간밖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외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외적현상들은 단지 인간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오와 흉폭성등 인간 내면의 외부적인 표출이며 투사(投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인간의 잔혹성이 극에 달한 시대의 병폐는 곧 인간의 가치관의 혼란에 그 원인이 있다. 지금까지 구라파를 받치고 있던 기독교적인 윤리관은 영악해지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규범하기에는 이미 그 힘을 잃은지 오래였다. 600만의 유대인이 아리안족의 순수혈통을 유지한다는, 단 한 가지의 미명아래 히틀러(Hitler)에 의하여 강제 수용소의 가스 살인실에서 죽어가고, 신은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었다. 더구나 기독교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교황청에서조차도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이유와 신의 부재(不在)를 절감하면서, 구원의 희망조차도 없어져 버린 죽음을 향해 절망적인 죽음의 행진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T.S. Eliot는 이러한 절망의 시대와 이 시대를 사는 텅 빈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 20세기 서구의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하나이다. 그가 이러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느끼고, 또 표현한 것이 바로 그의 작품 세계이다. 그는 미국의 명문 출신으로, 미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학교 중의 하나인 Harvard에서 철학을 전공한 인물이다. 그가 철학을 공부하게 된 근본 동기에는 아마도 이러한 시대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영국인으로서의 귀화와 영국국교에로의 개종은 이러한 우리의 가정을 좀 더 굳혀주는 근거가 된다. 그는 개인의 뿌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로서의

* 이 논문은 1989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 (S.N.U. Daewoo Research Fund)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뿌리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곱씹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Eliot가 보여 주거나 제시하는 현대의 혼란된 가치관에 대한 대안들은 적절한 것이 못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인의 병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그는 기독교에로의 개종을 내세운다. 이같은 처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느낌까지도 준다. 현대의 다원화(多元化)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의 다원적인 가치관이, 기독교라는 구시대의 가치관으로 치유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더구나, 기독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채택된 중세에서의 병폐를 알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Eliot의 이와같은 처방은 큰 공감을 일으킬 수가 없다. 더더구나,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야기된 현대의 수많은 병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기독교로의 귀의만을 역설할 때, 많은 사람들은 Eliot의 시인으로서의 자질은 인정하지만, 그의 처방에는 등을 돌린다. 그가 역설하는 기독교적인 귀의에 사회운동적인 요소가 결핍된 경우, 사회 참여에 의한 사회의 개선을 부르짖는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Eliot의 처방은 한번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쓸모조차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Eliot가 주장하는대로의 기독교적인 귀의는 사회의 개선과는 거리가 먼 개인의 도피처로서의 종교로만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Eliot가 보여준 기독교에로의 귀의가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개인적인 도피처로만 끝나는 것일까? Eliot는 사회적 개혁은 사회전체의 개혁보다는 개인의 변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사회의 변혁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제도적인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만큼이나 쓸데없는 일이다. 물론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개인과 사회의 변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Eliot는 개인의 변혁이 사회의 변혁에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개인의 변혁이라는 것도 우선은 기독교로의 귀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의 신비주의에 의한 더욱 철저한 개인의 변혁이 요구된다. 이러한 Eliot의 생각은 그의 전생애에 걸쳐서, 그리고 그의 문학작품의 구성구석에까지 스며 있는 생각이다. 우리가 그의 사상과 작품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러한 신비주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가정하에서 그의 신비주의가 그의 사상과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서 발전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정하여 이를 따라가 보겠다.

II. 본 론

1. 신비주의의 정의와 Eliot의 신비주의적인 경향

우선 신비주의하면, 우리는 St. John of the Cross나 성 테레사 St. Teresa와 같은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들을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깊은 산 속의 절에서 면벽(面壁)하고서 세상

과는 인연을 끊고 수도에만 정진하는 전문적인 신비주의자들을 금방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신비주의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라고 할 때 모두 이와같이 전문적으로 수도만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다. 신비주의는 마음의 경향일 뿐, 어떤 수행 방식에 얽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비주의에 대한 정의도 단 하나의 정의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신비주의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우선 신비주의에 대한 하나의 잠정적인 정의를 만들어 보고, 이를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태기로 하자. 신비주의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또한 많은 학자들이 이를 연구하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신비주의에 대한 연구의 중심적인 연구가로는 Evelyn Underhill을 꼽는다. 그녀의 신비주의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신비주의란 단지 감각이나 지적인 영역 너머의 영역에 있는 진리와 실재(實在)에 대한 추구이다. [그러므로 신비주의는] 분별력이나 감각의 중재없이 궁극적인 실재를 직접 알고저하는 개인적인 열정을 보여준다.

mysticism [is] a quest for truth and reality that goes beyond merely sensory or intellectual spheres, taking on the aspect of a personal passion that must know directly ultimate reality without mediation of mind or sense.¹⁾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신비주의의 요체는 감각이나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을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직관에 의하여 우리 자신과 세상의 사물, 그리고 우리의 인식 자체 까지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신비주의란 결국 “눈이 자신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눈의 뒤에 존재하는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울”²⁾인 셈이다.

Eliot에게 있어서 신비적인 경험은 어릴 적부터 중요한 경험의 일부였으며, 그가 커서도 그 중요성은 감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만 머물지 않고 그의 시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신비적인 경험을 “우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일생동안 한 두번 정도 경험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경험이며, 글로 표현하기도 어렵다”³⁾고 쓰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속에는 신비적인 경험의 기록이 한 두번이 아니고 아주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그의 몇 안되는 초기의 산문에 속하는 “Eeldrop and Appleplex”에는 Eeldrop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수동적이고, 내성적이며, 신학과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⁴⁾ 1910년 7월에 쓴 시 “Silence”에서도 그는 자신이 일상적인 세계에서 겪은 아주 강력한 신비 경험을 묘사하고

1) Robert S. Ellwood, Jr., ed., *Mysticism and Relig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0), p.14.

2) Ellwood, p.14.

3) William Skaff, *The Philosophy of T.S. Eliot: From Skepticism to A Surrealistic Poetic 1909~1927* (Univ. of Penn. Press, 1986), p.21에서 재인용

4) Peter Ackroyd, *T.S. Eliot* (London: Hamish Hamilton, 1984), p.81.

있다.⁵⁾

사실, Eliot에게 있어서 신비주의는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유니테리언 Unitarian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전통에 기초를 둔 Harvard 대학에 다니면서 느끼게 되는 삭막함을 매꿔주는 돌파구이기도 했다.⁶⁾ 이러한 환경하에서 그는 신비주의와 종교심리학을 다룬 책에 끌리게 된다. 더구나 그는 대학에 다니면서 “모든 인생살이에 대해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으니, 신비주의에 대한 그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이 당시 그가 접한 신비주의에 관한 책으로는, W.R. Inge의 *Christian Mysticism*(1899), William James의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s*(1902), 그리고 Evelyn Underhill의 *Mysticism*(1911)을 들 수 있겠다.⁸⁾ 그는 이러한 그의 신비경험을 그의 시나 다른 문학작품에서 보여준다. 그의 이러한 문학관은 다음의 인용에서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신비경험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정확한 경험을 글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이를 전달하고자 해서 바라는데로 성공적으로 이를 전달하게 되면, 시는 신비적이 된다.

Poetry is mystical when it intends to convey, and succeeds in conveying, the reader ... the statement of a perfectly definite experience which we call the mystical experience.⁹⁾

이러한 신비 경험은 그의 시의 도처에 나타난다. 『네 사중주 *Four Quartets*』의 하나인 “드라이 샬비지즈 *The Dry Salvages*”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러한 Eliot의 신비경험의 절정을 보여준다.

시간 속에 든 순간과 시간을 벗어나는 순간
the moment in and out of time¹⁰⁾

이러한 Eliot의 신비경험은 『네 사중주』에서는 “정지된 점 still point”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개 장미원 rose garden에서 일어난다. 이와 비슷한 신비 경험은 다른 시에서도 나타난다. 『황무지 *The Waste Land*』에서는 히아신스밭 Hyacinth garden에서 (히아신스) 꽃을 한 아름 안은, 머리에서는 아직도 물방울이 뚝뚝 듣는 히아신스 소녀 hyacinth

5) Skaff, p. 22.

6) Ackroyd, p. 52.

7) Ackroyd, p. 52.

8) Skaff, p. 22.

9) Skaff, p. 21.

10)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69), p. 190. 이후로는 T.S. Eliot의 시와 산문은 다음에서 인용하겠으며, 인용은 본문에 책이름의 약어를 표시한 다음 약어 다음에 쪽수를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겠음.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S. Eliot: CPP

The Sacred Wood: Essays on Poetry and Criticism (London: Methuen, 1920): SW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Philosophy of F.H. Bradley (N.Y.: Farrar, Straus, 1964): KE

After Strange Gods: A Primer of Modern Heresy (London: Faber and Faber, 1934): ASG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1932): SE

girl(CPP, 62)의 묘사에서 이런 신비경험이 묘사돼 있다. 이처럼 장미원이나 히야센스밭에서의 신비경험이 묘사된 것은 그의 신비경험에는 자전적인 요소와 더불어 신학적인 의미가 부여돼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가 St. Louis에 살던 어린 시절 Mary Institute라고 하는 여학교가 바로 그의 집과 담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의 누나들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수줍고 외로운 Eliot은 담너머로 들려오는 청순한 여학생들의 웃음속에서 기쁨을 찾았다. (그가 나이들어서도 여인들에게서 높은 정신적인 위안을 추구한 것은 이러한 그의 어릴 적 경험에 기인한다.)¹¹⁾ 또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 our first world”(CPP, 171)가 에덴 Eden인 것을 유의하면, 장미원이나 히야센스밭이 신비 경험의 배경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Eliot의 작품들에 나오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 시간의 공간(시각)화——〈객관적 상관물 objective correlative〉

Eliot의 문학 이론과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경우들을 보면, 이들 이론 밑에는 신비주의적인 생각이 깔려있음을 발견하고, 우리는 Eliot에게 있어서 신비주의가 갖는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객관적 상관물의 이론 뒤에도 Eliot의 신비주의적인 생각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기로 하자. 신비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실제와 인간 개체의 합일에 대한 열망이다. 이 경우 인간 개개인은 유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 덧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실재 Reality는 이러한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시간을 초월하는 실체라는 점에서 인간은 실재와의 합일에 의하여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비주의자들은 시간의 초월을 열망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사람들이라 하겠다. Eliot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의 문학이론과 문학작품의 구석구석까지 스며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의 극복과 초월에 대한 시도들이다. 그의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문학이론이 이러한 예의 하나에 속한다. Eliot는 *The Sacred Wood*라는 평론집에 실린 “햄릿과 그의 문제들 Hamlet and His Problems”라는 논문에서 Shakespeare의 『햄릿 *Hamlet*』가 실패작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술의 형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의 “객관적 상관물”, 다시 말하면, 그 〈특정한〉 정서의 공식이 될, 그리고 그와 똑같은 감정을 독자에게 불러일으킬 일단(一團)의 사물들, 하나의 상황, 일련의 사건들을 찾아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The only way of expressing emotion in the form of art is finding an “objective correlative”; in other words, a set of objects, a situation, a chain of events which shall be the formula of that *particular* emotion. (SW, 100)

즉, 『햄릿』이 성공작이 아닌 이유는 그 작품에는 객관적 상관물이 잘 구현돼 있지 않기 때

11) Skaff, p. 22.

문이라고 Eliot는 주장한다. 이러한 비평은 대단히 대담한 지적이며, 또한 그의 신념에 바탕을 둔 주장이기도 하다. William James는 그의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에서 신비주의의 특징으로 네 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비경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 ineffability를 들고 있다.¹²⁾ 이는 신비경험이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뛰어 넘는 직관에 의한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의 설명과는 달리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신비경험을 한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사람하고만 이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징에 의해서만 서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같은 의사소통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Eliot는 그의 <객관적 상관물> 이론에서 작가와 독자사이의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가장 압축된 상징을 쓰기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¹³⁾

Eliot는 이 이론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에서도 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J.A. 프루프록의 사랑 노래,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는 객관적 상관물의 두드러진 예이다.

그러면 우리 갑시다, 그대와 나,
지금 저녁은 마치 수술대 위에 에테르로 마취된 환자처럼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Let us go then, you and I,
When the evening is spread out against the sky
Like a patient etherised upon a table. (CPP, 13)

이 묘사는 마취된 환자라는 정확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하여 무기력하고 지쳐버려서 움쭉 달싹도 할 수 없는 현대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무기력은 안개처럼 어디에나 스며 있다는 점에서 현대의 병폐가 된다.

유리창에 등을 비벼대는 노란 안개,
유리창에 코를 비벼대는 노란 연기,
저녁의 구석구석까지 혀로 핥고서,
수체에 뽀얗게 웅덩이 위에서 미뿔거리다가,
굴뚝에서 떨어지는 그을음을 등에 받으며,
테라스 걸을 살짝 빠져 쾅쾅 한 번 뛰고선,
아늑한 10월 달밤인 줄 알았던지,
집 돌레를 한 바퀴 빙 돌고선 잠이 들어버렸다.

The yellow fog that rubs its back upon the window-panes,
The yellow smoke that rubs its muzzle on the window-panes,

12)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Y.: The New American Library, 1958), pp.292-293.

13) Richard Woods, ed., *Understanding Mysticism* (London: Athlone, 1980), p.309.

Licked its tongue into the corners of the evening,
 Lingered upon the pools that stand in drains,
 Let fall upon its back the soot that falls from chimneys,
 Slipped by the terrace, made a sudden leap,
 And seeing that it was a soft October night,
 Curled once about the house, and fell asleep. (CPP, 13)

유리창에 코를 비벼대는 무기력한 노란 안개와 노란 연기, 더러운 물이 고인 수채와 웅덩이, 골푹에서 떨어지는 그을음——이 모든 이미지들은 현대의 풍경을 추상화로 담아낸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썩고 무기력한 현대인의 삶과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린 일상을 다음과 같은 상징적인 이미지 보다 어떻게 더 잘 상징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 일생을 커피 스푼으로 되질하면서 살아왔다.

I have measured out my life with coffee spoons. (CPP, 14)

Eliot는 그의 〈객관적 상관물〉을 통하여 이 시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현대와 현대인이 안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를 보여주도록 한다. 그는 이미 목적없는 삶을 의미없는 〈시간〉 속에 실어 보내고 있을 뿐이다. 그의 의식은 그 자신의 자의식속으로만 향하면서 갈혀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좌절된 상태를 Eliot는 신비 경험을 통하여 보았으며, 이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가장 적절한 상징적인 수법이 바로 그의 〈객관적 상관물〉에 의한 기법인 셈이다.

3. 닫혀진 의식과 열린 시간——〈동시적 경험 immediate experience〉

이처럼 〈시간〉속에 갇혀 버린 프루프록의 의식을 풀어내 주는 방법은 없을까? 정확한 문제의 제기가 최선의 해결책을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이와같은 우리의 의문이 〈동시적 경험〉을 통하여 이제 풀려질 기미까지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동시적 경험〉이란 본래 브래들리(F.B. Bradley)의 철학사상으로, Eliot는 그의 철학박사 학위 논문인 『F.H. Bradley의 철학에 있어서의 지식과 경험,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Philosophy of F.H. Bradley*』(1916)에서 Bradley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를 자기 생각으로 수용한 것이다. 우선 『황무지』의 주(註)에서 Eliot가 Bradley의 『현상과 실재 *Appearance and Reality*』(Oxford, 1930), p. 306에서 인용한 부분을 보기로 하자.

내가 외부세계를 느끼는 것은 내 사상이나 감정과 마찬가지로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것이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내 경험은 내 자신의 영역, 즉 외부와는 결연된 내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어느 [의식]영역도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다른 [의식]영역에게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결국 온 세상은 한 개인(영혼)에게 비쳐져 존재함으로써, 그에게만 독특하고 그 만의 것이 된다.

My external sensations are no less private to my self than are my thoughts or feelings. In either case my experience falls within my own circle, a circle closed on the outside; and, with all its elements alike, every sphere is opaque to the others which surround it... In brief, regarded as an existence which appears in a soul, the whole world for each is peculiar and private to that soul. (CPP, 80)

이 인용에서 보듯이 Bradley가 생각하는 인간의 현실 인식은 주관적인 의식속에서 하나로 통합돼 있다. 그에게 있어 현실 인식이란 이처럼 주관적일 뿐, 이성적이거나 초감성적인 의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Bradley에게 있어서 사물을 <안다 Knowledge>는 것은 단지 주관적인 인식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Bradley의 생각을 좀 더 보기로 하자.

어떤 순간에 있어서나 나의 실제 경험은 그 내용이 아무리 상대적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대적이지 아니다. [그 경험을] 아무리 상호관계나 조건으로 분석하더라도 그 본성을 완전히 파헤칠 수 없고, 그 본질은 결국 드러나지 않는다.

At any moment my actual experience, however relational its contents, is in the end non-relational. No analysis into relations and terms can ever exhaust its nature or fail in the end to belie its essence.¹⁴⁾

이와같은 Bradley의 생각을 분석해 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의 생각은 일원론적(一元論的, monistic)이다.¹⁵⁾ 일원론이란 이원론(dualism)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히 플라톤 Platon의 이원론에서는 사물을 두개의 대립항으로 보는 것에 비하여(물질/정신, 현상/실체, 주체/객체 등), 일원론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없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하나라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Bradley의 철학에 의하면, 세상의 궁극적인 실체는 전체적인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 단지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여러가지 현상으로 나타날뿐, 실체와 현상 사이에는 본질적인 구별이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는 따지고 보면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생각으로서, 불교에서도 세상을 일원론적으로 보고 있다. Eliot가 Bradley의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일원론에 끌렸음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그가 뒤에 불교에 매력을 느낀 것도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Bradley의 생각이 일원론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또한 관념론적(idealistic)이다.¹⁶⁾ Bradley의 철학이 일원론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원론적이지 아니라는 말일텐데, 그의 생각이 관념론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일원론하고는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일원론과 관념론과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다. 위에서 Bradley는 세상의 궁극적인 실체는 전체적인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실체가 여러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세계가 의식(mind)에 의하여 인

14) Hugh Kenner, *The Invisible Poet: T.S. Eliot* (London: Methuen, 1959), p. 45.

15) Skaff, p. 12.

16) Skaff, p. 13.

식되는 것이라면, 이는 곧 의식에 이런 현상이 <있게> 된다는 말이다. <있게> 된다는 말은 곧 만들어진다는 말이니, 실체는 의식을 구성하는 관념들(ideas)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실체는 곧 관념이라는 말이 되므로, Bradley의 철학은 관념론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Bradley의 철학은 일원론적인 관념론(monistic idealism)이지, 이원론적인 관념론(dualistic idealism)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원론에서는 우리의 의식밖에 존재하는 사물은 인식의 주체와는 상관이 없는 타자(他者, other)로서의 객체인데 반하여, 일원론적인 관념론에서의 사물은 인식의 주체인 우리와 떨어져서 별개로 존재하는 객체로서의 사물이 아니고, 사물은 곧 우리의 관념(idea)으로서 우리와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나 Bradley의 이러한 생각은 상대적인 세계를 관념에 의하여 하나로 묶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Bradley의 이론에 의하면 인식의 주체인 의식과 인식의 객체인 사물의 구별이 없어진다. 그러나 인식의 주체인 자아(self)와 인식의 객체인 세계(world)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객체인 세계는 우리의 지성이 만들어낸 구조물로서, 실체가 없는 관념에 머무르고 만다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Eliot가 그의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이고, 그는 또한 이 문제를 풀어 보여준다. 그는 <동시적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동시적 경험이란……하나의 초(超)시간적인 통합체로서, 이는 그 자체로서는 어느 특정인에게나 또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만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 자신들로 이루어진 사물의 세계에서만 존재한다. 동시적인 경험을 못하게 되거나, 또는 우리의 경험에 조화와 통일성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우리는 객체로서의 사물의 세계에서 하나의 의식을 하는 영혼으로 남게 된다.

Immediate experience... is a timeless unity which is not as such present either anywhere or to anyone. It is only in the world of objects that have time and space and selves. By the failure of any experience to be merely immediate, by its lack of harmony and cohesion, we find ourselves a conscious soul in a world of objects. (KE 31)

이와같은 Eliot의 생각은 몇 가지 점에서 Bradley의 생각을 전향적으로 발전시켰다. 우선 <초시간적인 통합체 a timeless unity>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동시적인 경험>의 시간적인 속박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시적인 경험>이 초시간 속에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은 <다만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 자신들로 이루어진 사물의 세계에만 존재한다>고 못박음으로써 구체적인 사물의 실체(essence)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시적인 경험>은 하나의 느낌으로서 또한 <하나의 유한 중심 a "finite center">¹⁷⁾으로서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 Eliot에 의하면, 영혼은 정확히 말해서 유한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가지 감정의 기복은 일관성이 없어서 영혼의 작용이라

17) Skaff, p.12.

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KE 205). 그러나 특정한 인물(personality)이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이 되면 이것은 유한 중심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고 Eliot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유한 중심>은 하나의 <시각 point of view>을 갖게 된다고 본다.

영혼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유한 중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영혼[이라는 막연한 실체]가 개성을 많이 발휘하게 되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이 경우 하나의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 더욱 확실하다.

The soul itself may be considered in a loose sense as a finite center. The more of a personality it is, the more harmonious and self-contained, the more definitely it is said to possess a "point of view." (KE 148)

그러므로 Eliot의 생각에 따르면 하나의 개인은 일련의 유한 중심의 합(合)인 것이다. 이처럼 Eliot는 Bradley의 <동시적 경험>을 개인적인 차원의 구체적인 사실로까지 끌어내렸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주 커다란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경우 절대적인 실재(Reality)와 진리(Truth)는 개개의 유한 중심, 곧 <시점>의 합으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실재와 진리란 단지 모든 시점의 합일 수 밖에 없는데,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불가능하므로, 결국 진리란 가능한 많은 시각의 합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진리>란 대문자로서의 Truth가 아니고 <가장 진리에 가까운 것 most true>에 귀착하게 된다. 결국 Eliot는 Bradley의 철학에서 <동시적 경험>이라는 개념과 함께 <유한 중심>, <시각>의 개념을 추출해내긴 했으나, 이는 아직도 그의 통합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단지 초시간성이 구체적인 사물에 있다는 이론만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발전은 열린 시간으로의 방향을 보여준다.

<객관적 상관물>의 예를 프루프록에서 보았다면, 우리는 동시적 경험의 예를 『황무지』에 나오는 티레시아스(Tiresias)에서 볼 수 있다. 이 인물은 소포클레스(Sophocles)의 연극인 『오이디프스 왕 Oedipus Rex』에서도 나오는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희랍신화에서는 그가 남자와 여자의 성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돼 있다. 『황무지』는 하나의 등장인물의 통합된 의식의 기록이 아니라 평을 듣는다. 그러나 Eliot는 그의 주(註)에서 예외적으로 그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이는 Eliot의 성격상 아주 놀라운 사실로, 그는 Tiresias에게서 <동시적 경험>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쓴 주를 직접 읽어 보자.

티레시아스(Tiresias)는 단순한 하나의 방관자에 불과하며 이 시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에서 다른 모든 인물들을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애꾸눈 건포도 상인이 페니키아의 수부로 통합되고, 그 수부는 다시 나폴리의 페르디난드 왕자로 녹아 있듯이, 모든 여인은 한 여인이고, 남자와 여자의 양성은 Tiresias라는 인물 안에서 만난다. Tiresias가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의 내용이다.

Tiresias, although a mere spectator and not indeed a "character," is yet the most important

personage in the poem, uniting all the rest. Just as the one-eyed merchant, seller of currants, melts into the Phoenician Sailor, and the latter is not wholly distinct from Ferdinand Prince of Naples, so all the women are one woman, and the two sexes meet in Tiresias. What Tiresias sees, in fact, is the substance of the poem. (CPP, 78)

Tiresias는 우리가 위에서 본 <동시적 경험>, <유한 중심>, 그리고 <시각>을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예이다. Tiresias는 초시간 속에 사는 인물이지만, 그는 구체적인 사물을 보여 주며, 또한 단편적인 장면들은 개개의 <유한 중심>들이다. Tiresias는 <동시적 경험>에 의하여 이들을 통합한다. 이처럼 <동시적 체험>에 의하여 시간은 Tiresias의 의식속에 열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아직도 닫혀져 있다. 그의 의식은 단지 <유한 중심>의 합(合)일 뿐으로 이는 열려진 의식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열려지는가를 그의 <전통>과 <비개성>의 이론을 통하여 보기로 하자.

4. 열려진 의식으로서의 <비개성 impersonality>

Eliot의 신비적인 경향은 장소로서의 의식을 열고, 시간의 속박을 벗어난 초시간적인 상태의 추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전통과 개인의 재능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라는 논문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논문의 중요성은 이 논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 자체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논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 동양사상, 특히 인도의 요가(Yoga)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요한다.

1911년 Eliot는 Harvard대학에서 Lanman교수의 인도철학 강의를 듣고, 신티스크리트(Sanskrit)어와 팔리(Pali)어를 배웠다.¹⁸⁾ 신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는 인도와 불교 경전에 쓰인 언어들이다. 같은 해에 그는 또한 『요가 스트라 Yoga-Sutras』의 영어 번역자인 James Haughton Woods 밑에서 공부를 시작한다. Eliot는 인도 철학의 새로운 경지를 발견하고, 다음과같이 그의 경이를 표현한다.

찰스 랜만(Charles Lanman) 교수 밑에서 2년동안 신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제임스 우즈(James Woods) 교수 밑에서 파탄잘리(『요가스트라』의 저자: 필자 註)의 형이상학의 미로(迷路)를 헤매거를 1년 하고 나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좀 알듯도 하다. 인도의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알려고 한다면——인도철학자들의 난해함에 비긴다면 대부분의 위대한 서양의 철학자들조차도 국민학생 정도로 보인다——나는 희랍철학 이래로 서양철학에서 쓰이던 모든 종류의 구분을 나의 마음에서 말끔히 없애야만 한다.

Two years spent in the study of Sanskrit under Charles Lanman and a year in the mazes of Patanjali's metaphysics under the guidance of James Woods, left me in a state of enlightened mystification. A good half of the effort of understanding what the Indian philosophers were

18) Caroline Behr, *T.S. Eliot: A Chronology of His Life and Works* (London: Macmillan, 1983), p.6.

after—and their subtleties make most of the great European philosophers look like school boys —lay in trying to erase from my mind all the categories and kinds of distinction common to European philosophy from the time of the Greeks. (ASG, 41)

더구나, 예이츠(Yeats)에 의하면 Eliot는 Woods가 번역한 *Yoga-Sutras*를 “사전처럼 사용했다”고 한다.¹⁹⁾ 이로 미루어보아 Eliot의 인도 사상과 불교에 대한 열의가 보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Eliot의 인도 철학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우파니샤드(*Upanishads*)』나 『베다 *Vedas*』, 그리고 『기타 *Gita*』 등에까지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불교에 대한 관심에까지 이르게 된다.

불교의 근본 교리 중의 하나는 자아(Ego)에 관한 것이다. 서양 철학과 기독교에서는 자아는 영구불멸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비하여, 불교에서는 자아는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교에서 말하는 실체 없는 자아는 Eliot에게는 아주 큰 매력을 느끼게 했다.²⁰⁾ 그러므로, 그가 <전통과 개인의 재능>에서 말하는 예술의 <비개성> 이론은 불교의 이론을 빌려다 쓴 것이다.

내가 지금 공박하려고 하는 견해는 영혼이 실체가 있는 통합체라고 주장하는 형이상학의 이론에 관계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말하는 바는 시인은 표현할 “개성”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하나의 특이한 매개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매개체일 뿐, 개성은 아니다. 이 매개체 속에서 인상과 경험이 특이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식으로 합성된다.

The point of view which I am struggling to attack is perhaps related to the metaphysical theory of the substantial unity of the soul; for my meaning is that the poet has, not a “personality” to express, but a partial medium, which is only a medium and not a personality, in which impressions and experiences combine in peculiar and unexpected ways. (SW, 56)

Eliot의 <비개성> 이론을 들을 때 이것이 마치 불교의 교리를 해설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황무지』에 나오는 <불의 설교 *The Fire Sermon*>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는 Eliot가 그의 주에서 밝히고 있듯이 팔리어로 쓰인 불경인 『마하—마가 *Maha-Vagga*』에 나오는 구절로서, 감각 뿐만 아니라 자아의 의식까지도 탄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이 탄다 탄다 탄다 탄다
오 주여 당신은 나를 꼬집어 내시라
오 주여 나를 꼬집어 내시라
불이 탄다

Burning burning burning burning

19) Cleo McNelly Kearns, *T.S. Eliot and Indic Traditions: A Study in Poetry and Belief* (Cambridge Univ. Press, 1987), p. 58에서 재인용.

20) Kearns, p. 74.

O Lord Thou pluckest me out
 O Lord Thou pluckest
 burning (CPP, 70)

이것뿐만 아니라, 『네 사중주』의 〈드라이 샬비지즈 The Dry Salvages〉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는 실체가 없는 사람의 영혼이 계속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신들은 그 경계장을 떠났던, 똑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어느 종점에 도착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도 아니다.

.....

당신들은 뒤로 물러가는 항구를 본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앞으로 상륙할 사람들도 아니다.

You are not the same people who left that station
 Or who will arrive at any terminus,

.....

You are not those who saw the harbour
 Receding, or those who will disembark. (CPP, 188)

Eliot는 이처럼 불교의 교리를 원용하여 열려진 자아로서의 〈비개성〉의 원리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Eliot의 시론은 단지 이론으로서의 중요성은 있을지 모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체험이나 갈구의 측면에서는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음에서는 그의 개인적인 차원의 갈구로서의 신비주의가 그의 시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보기로 하자.

5. 외로운 영혼의 타는 목마름——『황무지』와 〈텅 빈 사람들〉

많은 비평가들은 이 시 『황무지』를 현대 비평을 원용하여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이 시를 하나의 중요한 사회비평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등 내게 [과분한] 영예를 돌립니다. [그러나] 이 시는 나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푸념을 털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시는 단지 운율에 맞추어 나의 불평을 토로한 것일 뿐입니다.

Various critics have done me the honour to interpret the poem in terms of criticism of the contemporary world, have considered it, indeed, as an important bit of social criticism. To me it was only the relief of a personal and wholly insignificant grouse against life; it is just a piece of rhythmical grumbling.²¹⁾

위에 인용한 것처럼, 많은 비평가들은 『황무지』를 Eliot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문명비판적인 입장에서 보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Eliot 자신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문학작품이 발표된 뒤에는 그것에

21) *The Waste Land: A Facsimile and Transcript of the Original Drafts including the Annotations of Ezra Pound*, ed. Valerie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71), p.1.

대한 해석은 독자와 비평가의 일일 뿐, 작가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Eliot의 이와같은 진술을 받아들여, 이 시의 연원이 순전히 개인적인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의 위대함은 Eliot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상황과 맞아 떨어짐에 있다. 훌륭한 시인은 뼈 속으로부터 자기가 사는 시대를 느끼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인 상황의 묘사가 곧 그 시대 상황의 묘사가 된 것이라 고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현대의 〈황무지〉의 주민이 되었으며, 이러한 정신적인 불모(不毛) 상황은 현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시의 대표적인 특징은 고전과 신화에서 많은 인용을 한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은 언뜻 보기에는 서로 아무런 유기적인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저 조각난 〈단편들 fragments〉의 조합처럼 보인다. 결국 이러한 단편들은 〈깨진 형상의 무더기 A heap of broken images〉(CPP, 61)로만 남게 된다. 이들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 실체가 없는 깨어진 조각들의 목소리일 뿐이다. 이는 바로 현대인의 정신적인 불모 상황이다. 전체로서의 삶의 목적을 잃고,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쫓기듯이 사는 현대인의 생활——더구나 이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신(神)이 없기 때문에, 깨어진 조각들인 현대인들은 〈유한 중심 finite center〉으로서만 존재할 뿐 목적을 가진 시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단편들로 나는 폐허를 지탱해 왔다. These fragments I have shored against my ruins〉(CPP, 75)라고 Eliot은 말한다. 신에게서 멀어진 소외된 인간은 목적을 잃은 단편일 뿐이다.

이같은 단편들(fragments)의 〈황무지〉에는 햇빛만 내려 쬐이고 물은 아무 곳에도 없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활력소인데, 물이 없는 황무지가 얼마나 살벌한가를 다음의 구절은 보여 준다.

태양은 내리쬐고,
죽은 나무 밑엔 그늘도 없다. 귀뚜라미는 위안을 주지 못하고,
메마른 돌 틈엔 물소리 하나 없다.

the sun beats,
And the dead tree gives no shelter, the cricket no relief,
And the dry stone no sound of water. (CPP, 61)

물 한 모금 없는 황무지의 주민들은 물이 없는 상태를 그저 방관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그들에게는 물——생명에의 간절한 간구가 기도처럼 떠오른다. 〈민약에……〉는 가장 강한 갈구이며, 또한 기도이기도 하다. 물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강한 기도는 생명을 잃은 인간의 참담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엔 물은 없고 다만 바위뿐
바위만 있고 물은 없는 모래밭 길뿐
이 길은 꾸불꾸불 산으로 올라간다

이 산은 물이 없는 돌산
 물이 있다면 우린 발을 멈추고 마실텐데
 바위 사이에서 우린 발을 멈출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땀은 마르고 발은 모래에 파묻혔다
 바위 틈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썩은 이빨같은 죽은 산 아가리는 물을 뿜어 내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설 수도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구나
 산 속에 고요마저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마른 번개만이 있을 뿐
 산 중엔 고독마저 없고
 다만 흙벽집 문에서
 시벨전 얼굴들이 비웃으며 소리지를 뿐

Here is no water but only rock
 Rock and no water and the sandy road
 The road winding above among the mountains
 Which are mountains of rock without water
 If there were water we should stop and drink
 Amongst the rock one cannot stop or think
 Sweat is dry and feet are in the sand
 If there were only water amongst the rock
 Dead mountain mouth of carious teeth that cannot spit
 Here one can neither stand nor lie nor sit
 There is not even silence in the mountains
 But dry sterile thunder without rain
 There is not even solitude in the mountains
 But red sullen faces sneer and snarl
 From doors of mudcracked houses(CPP, 72)

이 불모의 땅에는 물을 갈구하는 간절한 기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숨가쁘게 하는 것은 여기에 쉼표나 마침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산속의 황폐한 골짜기에 희미한 달빛에 쌓인 교회가 하나 있다. 이 교회는 텅 비어 있고, 그 주위에는 무덤들이 있다. 교회는 바람만이 사는 집일뿐——창도 없는 교회 당에는 마른 뼈들만이 마루에 쌓여 있고, 문은 바람에 저절로 흔들린다. 바람이 불면 무덤 위에 난 풀들이 노래를 한다(CPP, 73-74). 이 교회는 바로 성배(The Grail)를 찾아가는 기사가 향하는 곳이다. 간절한 염원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추구가 있는 곳——이곳이 바로 이 시의 배경인 황무지의 현주소이다. 다음 순간 지붕마루에 앉은 수탉 한마리가 <꼬끼요!> 하면서 번갯불 밑에서 우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곧 비를 몰고 오는 습기찬 바람이 밀려온다. 수탉의 울음이 새벽을 알리듯, 이제 희망의 새 아침은 이곳에도 찾아들 것이다. Eliot는 자신의 경험을 통

하여 이 지상에서 지옥을 보았다. 이 시는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준다. 지옥은 또한 구원의 약속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텅 빈 사람들 The Hollow Men〉은 〈황무지〉에 사는 주민들을 아주 잘 묘사한다. 『황무지』에서 Eliot은 불모지의 전반적인 배경을 보여줬다면, 〈텅 빈 사람들〉에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서, 머리는 짚으로 채워진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곧 우리 자신임을 알 때 우리는 새삼 자신의 〈텅 빈〉 가슴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텅 빈 사람들
우리는 짚으로 채워진 사람들
서로 기대고는 있지만
머리는 짚으로 차 있네.

We are the hollow men
We are the stuffed men
Leaning together
Headpiece filled with straw. (CPP, 83)

텅 빈 사람들만이 사는 나라는 삶의 나라일 수가 없다. 그것은 사막이며, 죽음의 나라이고, 황폐한 정신의 불모지이다. 이곳에는 기도도 성배를 찾는 기사도 없다.

이곳은 죽음의 나라
이곳은 선인장의 나라
여기에 돌의 우상들이
세워지고, 여기에서 그것들이
죽은 이의 손의 탄원을 받아들인다.
꺼져가는 별의 반짝임 밑에서.

This is the dead land
This is cactus land
Here the stone images
Are raised, here they receive
The supplication of a dead man's hand
Under the twinkle of a fading star. (CPP, 84)

『황무지』에는 구원의 희망이 있었다. 거기서는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의 기다림도 있었다. 그러나 〈텅 빈 사람들〉에서는 종말의 예고만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는다.

이것이 세계가 멸망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세계가 멸망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세계가 멸망하는 방식이다
광하고 끝나지 않고 장탄식으로 끝나는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Not with a bang but with a whimper. (CPP, 86)

세 번이나 반복하는 불길한 주술같은 예언. 세상은 팽소리를 내면서 그래도 장엄하게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장탄식으로 끝난다고 Eliot은 예언한다. 그러나 종말의 예언은 악의에 찬 예언이 아니고, 비극적인 종말을 예방하기 위한 선지자의 예언이다. 어떻게 세상이——곧 개인이——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음에서 보기로 하자.

6. 영혼의 어두운 밤——〈성회 수요일 Ash-Wednesday〉

Eliot는 지금까지는 유럽적인 지성에 의하여 영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의 전통 tradition의 개념이다. 전통이란 한 문화——이 경우는 구라파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호머(Homer), 버질(Virgil), 단테(Dante), 셰익스피어(Shakespeare) 등으로 대표되는 항구적인 문화적인 유산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시간이 공간화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허구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갑자기 오는 깨달음의 순간들도 영원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²²⁾ 그의 이러한 깨달음은 유럽의 인문주의에 바탕을 두고 전통의 영구화를 꾀해오려던 그의 지금까지의 시도들——특히 전통의 개념과 이와 관계되는 개념으로 〈통합된 감수성 the unified sensibility〉——을 의심하게 되었다.²³⁾ 이러한 계기는 그에게 우연히 온 것은 아니다. 이는 그가 1927년에 영국국교인 성공회 Anglican Church로 개종했으며, 또한 영국 시민으로 귀화했다는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그의 개종은 1927년부터 따로 따로 썼던 여섯편의 시들을 1930년에 모두 합쳐서 〈성회 수요일 Ash Wednesday〉이라는 한 편의 시로 발표한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시에는 그의 이러한 종교전환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성회 수요일은 사순절(Lent)의 첫날로서 가톨릭과 성공회에서는 40일간의 금욕과 참회의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 기간은 성회 수요일에서 시작하여 부활주일 전날 저녁에 끝난다. 이 기간은 예수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신도들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기간이다. 성회 수요일의 미사에서는 〈창세기 3:19〉에 나오는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 가리라”라는 성경 구절을 신부가 읽는다. 이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진리를 말해주는 것으로, 인간의 가장 처절한 상태를 보여준다. Eliot 자신도 이 성경 구절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희망이 없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

22) J. Hillis Miller, *Poets of Reality: Six Twentieth-Century Writers* (N.Y.: Atheneum, 1974), p. 184.

23) Eloise Knapp Hay, *T.S. Eliot's Negative Way* (Harvard Univ. Press, 1982), p. 98.

다. 이러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지성의 힘으로써가 아니고 오직 신앙의 힘에 의한 신의 구원뿐이다. 그러므로, <성회 수요일>은 앞에서 본 『황무지』나 <텅 빈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른 시이다. 후자의 두 시가 인간의 지성에 의하여 인식된 삶의 무가치를 보여준 것이라면, 전자(즉, <성회 수요일>)는 종교의 눈으로 본 삶의 무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황무지』나 <텅 빈 사람들>에서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나, <성회 수요일>에서는 삶에 대한 절망이 크면 클수록 또한 신의 구원도 더욱 확실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Eliot는 삶의 한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무가치함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고백한다.²⁴⁾

이 시에서 Eliot가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의 성요한 St. John of the Cross이 말하는 <영혼의 깜깜한 밤 Dark Night of the Soul>과 같은 것이다. 신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은 완전한 정화(淨化, purgation)를 이루어야 한다. 그 이유는 신이 위계상으로 봐서 가장 높은 존재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 보다는 차라리 신이 우리가 감각이나 직관으로 느끼는 어느 것보다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있는 어느 무엇도 신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신은 우리가 아는 어느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아무것도>도 아니다.²⁵⁾ 이는 신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우리는 신이 아무 것도 아님(nothing)을 불교에서 말하는 <빔 空, sunyata>에 비유할 수도 있다. 우리 인간은 신의 사랑이 곧 인간의 사랑과 같은 것이라는 오류를 범하는 데 이는 큰 잘못이다. 신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이 정화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우리는 커다란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왜냐 하면 정화는 빛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심연 an abyss of darkness>²⁶⁾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의하면 역설적이게도 신의 빛은 “[우리의] 오성(悟性)에게는 어둠의 빛 à ray of darkness”²⁷⁾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Eliot가 Harvard대학에 다니던 때인 1912~1914에 작성해 놓은 메모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이 당시에 이미 성 요한의 신비주의에 대한 글을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²⁸⁾

Eliot는 그가 십자가의 성요한에게서 알게 된 <영혼의 깜깜한 밤>에 대한 경험을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더구나, Eliot는 성격상 소심하고 사색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요한의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은 Eliot에게는 꼭 들어맞는 경험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빠스칼의 빵썰 The “Pensées” of Pascal>라는 논문에서 그가 성 요한에게서 받은 영향을 빠스칼의 예를 통하여 보여준다.

24) T.S. Matthews, *Great Tom: Notes Towards the Definition of T.S. Eliot*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74), p.116.

25) Hay, p. 154.

26) Hay, p. 154.

27) Hay, p. 154.

28) Hay, p. 98.